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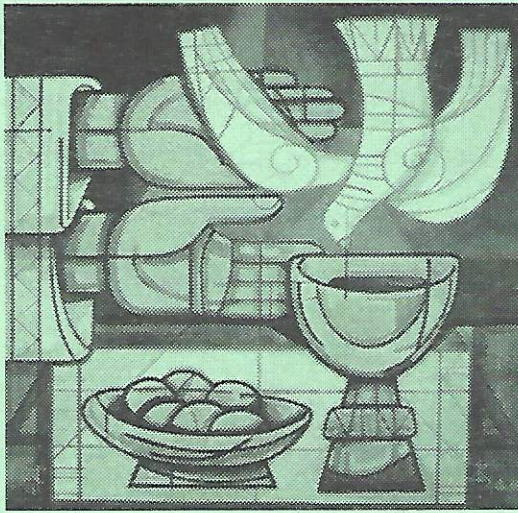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9주일

제35권 37호(나혜) 2015년 8월9일

[묵상]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로잡은 함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신학과 철학이 하느님을 자세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학문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는 하느님이라면 그건
하느님이 아닙니다.
‘신비’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신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다고 잘난 체하고,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오만한 위선자
가 되지 말고,
먼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치원 안드레아 신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메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이용식 베드로, 김상진 토마스, 이용수 요셉, 박수경 스테파노, 이태숙 카타리나, 현시영 요셉, 전시웅 요한, 이종수 마틴,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영식 & 김영자, 안지조 & 차소저, 고준희 제임스, 배정환 베드로, 최대명, 연옥영혼, 류동환 야고보
	(생) 민원희 안나 & 토런스 동2반 가정들, 김영숙 헬레나 & 반정이 루시아, 정린다 세라피나 & 정엘리스 클라라, 장학기금을 기부하신 분, 박지상 아우구스틴 & 엘리아나 & 조이,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열왕기(1 Kings) 상권 19, 4~8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제2독서 에페소서(Ephesians)4, 30~5, 2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요한(John)6, 41~51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가톨릭이란?

2. 천주교의 한국전래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입니다.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따르면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 사람 그라몽(Grammont)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학(西學)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승훈은 귀국하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드디어 지금의 명동 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일입니다.

기억 할게

활시위를 떠나 거침없이 날아가는 화살만 바라보았지.
과녁에 명중하는 화살에만 환호했었어.
아무리 예리한 화살촉이라도 활시위가 당겨져야
과녁에 꽂힌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힘껏 등을 구부려준 활은 생각지 못했네.
기억해야지.
화살이 멀리 갈수록
그만큼 웅크렸을 활의 등을.

- 이영 아네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241	226
봉헌	255	265	259
성체	주품에	280	291
파견	199	227	227

영원한 생명의 빵

인생은 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힘들게 걸어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여정을 동반하시면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아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의 주인공 엘리야 예언자도 역경의 순간에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기원전 9세기 중반 아합 임금 시절, 이스라엘에는 바알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두고서, 사백오십 명이나 되는 그들을 모두 처단해버립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의 후견인이었던 이제벨 왕비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급히 이웃나라로 도망칩니다. 길을 가다가 지쳐 나무 덩굴 아래 주저앉은 엘리야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느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며 깨우면서 음식과 물을 주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다 준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호렙 산에 이르러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 중에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종살이의 땅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사십 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준 음식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음식,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빵이란 우리에게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님의 몸, 곧 성체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담아 요리한 음식을 자식들이 먹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긴 성체를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닮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며 용서하면서 사는 것', 한마디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제2독서)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의 힘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 손희송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레 데레사	남성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15일 (토)아침 8시30분

8월15일(토)은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의무 대 축일이므로 교우들은 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 단체장 및 사목위원 특강

새 회계 년도를 맞이하여 본당의 모든 단체장, 구역장, 반장, 사목위원 및 차장님들의 봉사직에 대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8월 23일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성당

● 강사 : 최치원 안드레아 신부님

특강 후 사목위원들의 Workshop이 있습니다.

◆본당 안나회원이신 민기남 모니카님께서(76세)

8월 6일 목요일 새벽에 지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본당에서는 합동연도와 Viewing 만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동 연도 :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미사 후

*장례는 15일 LA 에서 가족들이 따로 모실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8월 요셉회 모임

친교 점심 나누기가 없는 관계로 요셉 회에서 따로 점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일시 : 8월 16일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성당

◆주일학교 교사 연수

● 대상 :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모든 교사 분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9일) 오전11시부터 5시30분까지

◆제 16 차 한국어 교사 연수

● 기간 :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 참가자 : 홍정은, 최은애, 이혜정, 최이원 교사

◆백삼위 한국학교 SAT II 준비반 특강

● 일시 : 8월 16일(주일) 오전 10:30~12:30

● 2015~2016 년도 한국학교 등록자에 한함

◆제1회 차세대 세미나

● 일시 : 8월 15일(토)

● 참가자 : 김명선(졸업생), 신희령(졸업생), 김호재(12학년)

* 이번 교사 연수와 차세대 세미나에 참가하는 선생님 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성령쇄신대회 CD 판매합니다

●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의 CD구입을 원하는 분은 사무실 또는 본당 성령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격 \$20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권오상 김판기 김광호 김선제 김 욱 김원모 김일선 김재희 김정순 김정웅 김주량 남명자 노혜숙 류현옥 박씨니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송영미 안재만 오세원 오일순 이근모 이상석 이은록 이인석 장영우 전정일 전정자 정동호 정지숙 주용순 최기남 최길주 한장환 송미카엘	합계:\$3,890
주일미사 헌금 : \$2,650	제활용품 : \$144.54	
성전헌금	강태홍 고천용 구자운 권오상 김판기 김선제 김 욱 김원모 김재희 김주량 남명자 노혜숙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안재만 오세원 이근모 이상석 이은록 이인석 장영우 정동호 정지숙 주용순 최기남 최길주 한장환 송미카엘	합계 : \$ 2,450
		2차헌금: \$535

남가주 소식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 시 : 2015년 9월 ~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KCBC 미주 가톨릭 방송

8월 30일부터 iTunes podcast를 통해
1세, 1.5세, 그리고 2세의 젊은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KCBC 미주가톨릭방송을 download 해서 들
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내용

- 차동엽 신부님의 주일강론
- 심동실 에밀리아의 아름다운 세상
- 김인실테레사의 투데이오늘은
- 영어 가톨릭뉴스
- 한국어권 / 영어권 청년 들을위한 교리 신앙, 문화교류
프로그램

● www.kcucus.podbean.com/feed/

◆제 4기 성 요셉천주교 아버지학교 개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일시: 9월 13일 오후 2시(매 주일, 4주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2040W.Artesia Bl, Torrance, CA 90504
- 참가비 : \$120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김태준 대건 안드레아 (213)249-4480

◆제 15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일시: 2015년 9월 13일(일) 오후 5시부터
- 장소 : 엘레이 옥스포드 호텔 (주소 :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 문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시: 2015년 8월 15일 (셋째 토요일)
- 공소예절 : 11시일 시 :
- 식 사 : 정오
- 장 소: 작은 예수회 LA분원(올림픽과 실로암 약국
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Los Angeles, CA 90006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새피나 991-4838	김정희 올리아 925-699-1253 8/7(금) 오후 6시성당 회의실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장수영 페트릭 871-0787 8/8(토)오후6시30분 성당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8/14(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인식 토마스 490-9662 8/22(토)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791-1374 8/8(토) 오후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벳다 8/10(화)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625-3312 8/21(금) 7시30분 소강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8(화) 오전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8/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안젤라/임젠타 938-8089 8/10((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749-3151 8/2(일)오후1시30분 De Portola Park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고천용&세실리아 310-531-0123 8/14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윤성진 안드레아 213-514-2365 8/14(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1(화)오후10시30분Hesse Park

이번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회의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32> 고성운 요셉. (?~1816년)

‘성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운(高聖云) 요셉은 충청도 덕산의 별암(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는 본래 성격이 착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신앙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였다.

요셉은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그는 형인 고성대(베드로)와 함께 8개월 동안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또 그들 형제는 언제나 합심하여 성서를 읽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열심이었으므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형 베드로는 한때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목숨을 보전하려는 유혹에 넘어가 석방되었으나,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우 요셉과 함께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 후 고성운 요셉은 형과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동)으로 이주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1815년 2월 22일경 교우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경주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을해박해의 시작이었다.

이때 노래산 교우촌 신자들은 도적이 온 줄로 알고는 몸이 날쎄고 기운이 세었던 요셉의 지휘에 따라 힘으로 대적하였다. 그러나 이내 신자들은 그들이 도적이 아니라 관청에서 파견된 포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자들은 모든 저항을 멈추었고, 요셉은 어린양처럼 양순해져서 제일 먼저 포승을 받았다.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과 같이 굳게 신앙을 지켰다. 그러자 경주 관장은 그들 형제와 함께 배교를 거부하는 다른 교우들을 모두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하였다.

대구에서는 또다시 문초와 형벌이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17개월이 넘게 괴로운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에 형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까지 그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동정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앞서 대구의 감사는 요셉 형제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였다.

“고성대?고성운 형제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천주교에 미혹되어 깨달을 줄 모르며, 엄한 형벌을 하거나 깨우치려고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죽기로 한 마음을 목석과 같이 고집하니, 그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교 후 고성운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그 유해가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길을 찾는 그대에게]

스마트 폰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난생 그렇게 얼굴 붉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입니까?

☞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하느님의 말씀이 변질하는 것도 아닌 만큼, 당황스러웠을 자매님의 처지가 심분 이해됩니다. 아울러 젊은이들에게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주님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는 방편으로 스마트폰 성경 읽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럼에도 사제단 연수에서 젊은 사제들이 스마트 폰으로 성무일도서를 하는 모습에서 강렬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리고 일일이 양피지에 필사하던 성경이 종이에 인쇄되어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종이에 인쇄된 것은 성경일 수 없다는 거부감에 시달렸다는 옛날얘기도 생각납니다.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은 변화하며 발전합니다. 악이 아니라면 변화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그럼에도 서로가 상대를 사랑으로 대하는 덕목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최고의 진리를 벗어나면 모두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사사건건, 일상 속에서 속 좁게 삐딱하게, 치사하고 저급하게 살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락을 이기기 위해서 무안했던 마음을 털고 외려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행위에 일희일비하지 않음으로써 “뱀처럼 슬기롭게”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기 바랍니다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고난의 위기를 맞게 되면 하느님은 예언자를 보내 당신의 뜻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중엽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사야’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이사야6,1-13

이사야는 이렇게 극적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희망을 가장 잘 증거한 인물입니다. 이사야는 우짜야 시대에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사회가 부패하고 종교마저 형식화되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양대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시대였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 갇힌 이스라엘은 어느 편이든 외국의 세력에 의존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위

정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이사야8,5-15

이사야의 일생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고통과 수난을 당하면서 예언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신앙을 전한 믿음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적 어려움이 와도 하느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인간의 능력만을 믿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을 재촉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충고를 따른 유다는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도 쉽게 하느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이사야10,1-23

이사야는 건전하고 능력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으며 정치적 식견도 풍부했습니다. 또한 강인한 면과 함께 따뜻한 인정미를 잃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사야는 비판을 할 때는 준엄했고, 격려를 할 때는 따뜻했습니다. 또한 그는 늘 변화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모든 삶을 주도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너희는 만군의 ()만을 거룩히 모셔라.
그분만이 너희가 ()해야 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해야 할 분이시다.”
(이사 8,13)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설사 바다의 ()
같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들만
돌아올 것이다.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가 넘쳐흐를 것이다.”(이사 10,22)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	일	8시(오전)~4시(오후)
월		휴무
화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겐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